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I.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86	3.55	6.10
	2. 경상수지비율	89.53	67.58	106.77
	3. 관리채무비율	0.00	7.35	0.21
	4. 통합유동부채비율	7.16	23.26	6.70
	5. 공기업부채비율	0.00	37.26	12.95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92	0.00
II.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5.80	25.90	9.48
	8. 지방세징수율	98.34	97.80	98.46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0	1.0007	1.0013
	9. 체납액관리비율	0.17	1.51	0.27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4.80	△5.44	△2.83
	10. 지방보조금비율	17.75	6.14	13.49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9.85	3.07	9.09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0.14	2.48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4.40	4.28	△4.33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9.48	19.10	27.57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33.84	22.61	20.25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사전 안내문, 정기적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등으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체납액 관리비율이 0.17%로 동종단체 평균인 0.27%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경상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수요가 많아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개발에 의한 지방세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text{세입} - \text{지출} \text{ 및 } \text{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 / \text{유동자산}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총자본}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text{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지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text{지방세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징수결정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	$\text{채납누계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text{지방보조금결산액}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text{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 - \{(\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 - \{(\text{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